

소개: 우리 인생의 **98%**는 기다림이다

2/26/2023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는 고대 통로를 통해 Through Ancient Pathways”라는 시리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과 온전함으로 형성되고 형성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길

Henri Nouwen은 "인생의 98%는 기다리는 데 소비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공항, 버스, 빨간불, 친구가 도착하거나 회의가 시작되도록

교회예배 끝남

또는 끝내기 위해 독감과 한판 승부

그러나 더 깊은 수준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삶의 더 충만한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하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우리는 거의 항상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언제 다시 오실지 알고 싶었습니다.

공원으로 돌아가거나 크리스마스나 생일이 다시 올 때.

3살짜리 아이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거의 항상 5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는 크고 싶어, 그녀는 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가진 경험입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거의 끊임없는 안절부절 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작을 위해.

우리가 그 학교에 들어갈지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게 될지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게 될지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 될지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반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중. 대기 중. 대기 중.

전환: 우리 삶의 대부분은 기다리는 데 소비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봉우리와 골짜기에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그를 향해 끌립니다. 그러나 매번은 어떻습니까?

대기 중?

어쩌면 나우웬이 과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98%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진실은 우리 삶의 대부분이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다림"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가장 중요하고 변혁적인 경험은 내가 기다릴 때였습니다.

이전에 이 주제에 대해 약 15개의 다른 설교를 작성했지만 세 가지 큰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내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 아이디어.

1. 기다림에 대한 다른 관점
2. 당신 안에서 기다림은 무엇인가
3. 기다리는 동안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장.

MVMT 1: 대기에 대한 다른 관점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멀리. 우리는 시간 속으로 약간 우회하여 다시 기다림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운율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거기 여섯째 날 아침이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는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창세기 **1:5,8,13,19,23,31,2:2**

시간은 신의 발명품입니다.

여기 지구에서 하루는 대략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간이 공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에서의 일의 길이

지구 24시간

화성 25시간

목성 10시간

머큐리 1,408시간

금성 5,832시간

그럼 하루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금성의 하루는 지구의 약 243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미래의 사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실 때를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몸에서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 이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그들은 그들과 공모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인기 있는 정당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처음 다섯 권만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모세의 책이라고 함).

많은 사람들이 논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와서 그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가 대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25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26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27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 하고 있다." 마가복음 **12:24-27**

그 대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뿌리 깊은 진리임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여호와YHWH” 또는 “나다I AM”이라는 이름조차도 그가 창조된 질서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선과 같은 선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을 위해? 그는 그것 밖에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분의 현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형 중에 이것을 다시 전시하는 것을 봅니다. 이상한 순간 같아

예수님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 보이는 복음서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누구신가. 나는 오전

그 자신. 수백 년 동안 다시 죽은 엘리야와 모세와 어울리기

몇 년이지만 어떻게든 살아 있고 완전히 정상적인 것처럼 예수님과 상호 작용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합니다.

시편 90편은 말합니다.

당신의 시야에 천년

방금 지나간 하루처럼

또는 밤의 시계처럼. - 시편 **90:4**

그리고

우리의 날이 칠십이 되나니

우리가 강건하면 팔십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들은 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날아갑니다. -시편 **90:10**

이것은 시입니다. 우리 모두는 70-8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우리의 삶은 짧고 제한적이며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대조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70-80년은 흘러가는 긴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우리에게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시며"?

Hallowed = 거룩한, 다른, 우리와 다른.

우리가 기다릴 때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 이렇게 우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시키십니다. 그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늘의 자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라! -찬송가

27:14 ESV

전환: 여호와께서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다림에 대한 견해는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즉각적인 결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유익과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해 우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MVMT 2: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볼 시간이 있습니다.

잠시 후 로마서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희망입니다.

1. 희망

바울은 로마서를 씁니다. 한동안 우리와 함께했다면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72주 시리즈" 이후에.

바울에게 기독교 희망은 언젠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희망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직하고 참되도다 그것은 그가 그가 주장한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것은 부서진 모든 것의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변하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생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합니다. 3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4** 인내, 성격; 그리고

성격, 희망.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 로마서 **5:2-5**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것은 참되고 참된 결과를 낳는 무언가를 우리 안에 형성합니다.

희망.

상황이 바뀌길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변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안의 더 깊은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언젠가 온 세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포화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슬프고 절망에 빠져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의 희망이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일깨워줍니다.

2. 성품(인내)

이제 로마서 5장을 더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다림이 우리 안에 인격을 키울 수 있음을 봅니다.

요즘 캐릭터가 너무 구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르네상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집중하고 싶은 캐릭터의 한 가지 특별한 측면은 인내심입니다.

나는 기다림이 인내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다리면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는 화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지연, 고통 또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임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인내(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참을성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의 항상 가능한 한 빨리 거기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성가신 한계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나쁜 소식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빨리 운전하고 싶었던 아이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한. 나는 19세에 목회를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결혼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대학에 다니면서 어린 자녀(4명)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할 때 원했던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회로와 장애물과 좌절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두셨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제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인내가 만족과 기쁨의 열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헤쳐나가기 위해 항상 서두르고 있다면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불안할 것이다

화난

두려워

또는 슬픈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살기에 끔찍한 방식입니다.

자연과 우회는 우리 내부에 우리가 있는 곳을 포용하는 성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걷고 배우고 그분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결과는 기다리는 동안 인내합니다.

이것은 대기에 대한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

3. 동기

기다림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낸다

사람의 행위가 다 순수하게 보이나

그러나 동기는 주님에 의해 평가됩니다. - 잠언 16:2

다시 말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난주에 "달걀과 전갈"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것처럼 되기 위해. 우리가 갱신될 수 있는 것은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올바른 이유로 실제로 원합니다. 어느 것이 원하는지,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나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을 하고 당신 자신에게 솔직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이라면 커버하려는 모든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동기 부여.

제 드림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라리, 테슬라 또는 빈티지 포드 머스탱을 원합니다... 나는 12인승 AWD Ford Transit Van을 원합니다. 웃기게 들린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모든 이유와 정당성을 줄 수 있습니다

원하지만 필요한 것

나중에 캠핑카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입니다.하지만

사실, 우리에게서 멋진 차가 두 대 있고 실제로 한 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동기를 조사하는 간단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쉽게 확신합니다. 자동차는 어리석은 예일 수 있지만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이것은 사역에서 큰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큰 플랫폼에 대한 이기적인 야망을 가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위와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중 누구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된 이유에 대한 올바른 것.

그것은 동기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동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전환: 이제 이것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이유로 할때,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MVMT 3: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합니까?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3가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Abraham + Sarah - 모든 희망에 대하여, 희망 안에서 믿으십시오

- 아브라함+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
-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
- 기다림이 쉽지 않았다.
- 스토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날것의 기도 탄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개입하기 위해.

-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다가 실패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 여호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손에 맡기리이다
- 하지만 그들은 계속 버텼다.
-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느니라.” -로마서 **4:18**
- 그 여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 그러나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아들보다 더 큰 무언가에 달려있었습니다.
- 그러나 땅의 모래보다 많은 믿음의 백성
- 그리고 그의 가게에서 인류를 구속할 구원자.
- 그들은 너무 작은 것에 눈을 돌렸다.
- 우리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 희망 없이, 희망 안에서 믿으십시오.
-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십시오.

요셉 - 믿음을 지키라

- 요셉의 이야기는 거칠다.
 - 하나님은 17세에 꿈을 주십니다.
 - 형들 사이에서 크게 되는 꿈입니다.
 - 그는 형에게 구타를 당하고 노예로 팔렸다.
- 범죄, 부당하게 투옥되고 감옥에서 잊혀진 단 한 사람에 의해 그가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 그리고 엄청난 반전이 찾아온다.
 - 죄수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로.
 - 그때 그의 형제들은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고 도착하여 그에게 절하며 구걸합니다.
- 기근이 그들의 집을 강타했기 때문에 식량을 구했습니다.
- 그리고 요셉은 그의 꿈을 기억합니다.
 - 23년을 기다리며 궁금해했다.
 - 그러나 그의 이야기의 진실은 그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 구덩이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 우리는 절망과 낙담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 타협하다.

-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십시오. 기다리면서 그와 함께 계속 걸어가십시오.

바우로- 계속 움직이세요

- 바우로의 이야기 대부분은 대기실에서 보내집니다. 우리는 하이라이트를 읽고 일상적인 액션으로 가득 찬 모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었고 조용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선택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그들의 왕,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 이것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재앙으로 끝납니다.

- 그리고 그는 약 14년 동안 레이더에서 벗어났습니다.

- 그가 아테네와 대대적인 대결을 벌이는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철학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는 길고 외로운 길을

Appian 길을 따라 내려가는 Corinth.

-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알아내려고 할 때입니다.

그에게 다음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285마일의 여행을 떠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달고 마침내 그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할지 봅니다. (이였을 것입니다

신이 그에게 더 일찍 그에게 말했다면 좋았습니다)

-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은 기다리면서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 바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 계속 믿고 싶다는 뜻입니다.

- 때로는 움직이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종종 기다림이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붙어 있다는 것.

- 그러나 기다림은 때때로 우리를 등지고 흐르는 물살과 같다.

-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강이 되게 하시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 대기 중에 좋은 질문과 어려운 질문을 하십시오.
- 그러나 계속 전진하십시오.

응답:

우리는 노래를 썼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다림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다림 가운데 당신 안에서 일하실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신실하며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